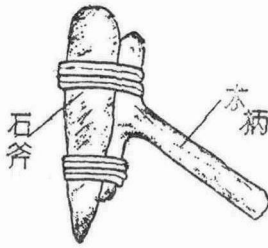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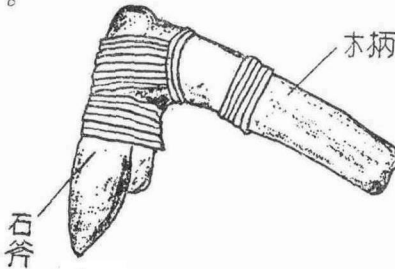


a. 아라스카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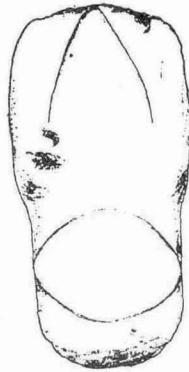


(據 Yale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16 p. 102)

b. 台灣例



(據 考古學報 1958 3) P1. 3)



慶州出土石斧



석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何如든 이 石斧에 어떻게 段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 石斧를 자루에 裝置할 때 必要한 構造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石斧를 자루에 裝

다시 말하면 石斧의 下半部가 上半部 보 다 段을 지어 넓이 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縮約된 上部와 넓어진 下部를 가진 石斧의 一例를 梨大博物館에서 본 일이 있었다. 梨大石斧는 그 出土地를 알 수 없으나 石質、形態가 이 慶州石斧와 비슷한 것이 注目되는데 이 慶州石斧도 慶州附近에서 出土한 것은 틀림 없는데 正確

置하는 데는 大概 丁字形木柄에 끈(木皮마위)으로 묶는 것이며 그런 例로서 現代 未開人들의 使用例는 波里네지아 諸島, 北美大陸, 또는 台灣等地에서 마أل든지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라스카와 台灣의 例를 各各 들어 둔다.

圖示한 바와 같이 石斧를 끈으로 木柄에 묶을 때 身部에 끈이 걸리도록 段을 만드는 것은 實用에서 나온 發明이라 하겠다. 이렇게 段을 가진 所謂 有段石斧는 太平洋島嶼一帶로부터 中國東南部に 걸쳐 널리 分布되는데 한가지 注意할 것은 여기서는 段이 石斧의 一側面에만 있고 他側은 平坦한 것인데 우리 慶州의 例는 段이 石斧 兩面 즉 넓은 面에는 없고 좁은 兩側에만 나타나 있어 서로 差異를 보이고 있는 點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發見되는 所謂 有溝石斧(挾入石斧)는 前記 中國地域의 有段石斧(鑿)와 關聯된 것이 거의 틀림 없는데 그와는 다르지만 一種의 有段石斧形式으로서 이 慶州發見石斧는 興味있는 一石器라고 할 수 있다. (一九六一年三月三十一日)

尹榕筆 採艾圖

全 鑿 弼

면산에 아지랑이 끼고 푸룽푸룽 새싹이 틀때가 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古人들이 그려놓은 本草의 기분이 담백 실린 興趣있는 風俗畫들이다. 日前에 畫帖을 들여다보다가 그 中에 愜趣 넘쳐 흐르는 尹榕筆 採艾圖를 보고 하도 좋아서 이에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豎二七·五cm 橫二一·二cm의 紙本水墨畫로서 따듯한 봄날 村家の 한 아릿다운 女人이 틀에 나가 시원한 봄 大氣를 마음껏 呼吸하면서 나뭇잎을 캐다가 잠깐 쉬느라고 일어서 있는 듯한데 저편 밭고랑에서 들러오는 종달새 소리나는 곳을 찾는지 面산에 아지랑이 낀 풍경을 바라보는 지 머리를 슬쩍 옆으로 돌리고 무심히 먼 곳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돌아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워 보인다.

조그마한 바구니를 걸지막한 끈에 매어서 어깨에 걸고 바른손으로

바구니를 옆에 끼고 왼손에는 길쭉스름한 호미를 들고 있다.



흰 누비수건을 머리에 쓰고 저고리 소매를 걷었으며 치마 자락을 걷어 허리에 찌르고 바지를 가든히 걸어올려 무릎 아래 동여매고 걸신에는 들메를 했다.

女人이 서 있는 近處에는 미음을 띠듯 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어 질어가는 봄기운이 저절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鄉土色이 담뜰실린 名品이요 부드럽고 品格 있는 筆致와 조촐하고 雅淡한 作風이 볼수록 情이 드는 傑作이라 하겠다.

畫幅의 右下隅에는 「君悅」 두 字를 行書로 韻致 있게 쓰고 그 밑에는 尹愔·君悅의 조그마한 白文方印 두 개를 찍어 놓았다.

畫幅 옆에는 妙한 行書로 쓴 申紫霞의 아래와 같은 題跋이 붙어 있다. 雨苗風葉綠重々 織手青絲出漢宮 滿眼蒼生總如此 思看塗抹畫圖中 紫霞題

이 採艾圖의 作者 尹愔은 「檀城書畫徵」에 보면

尹愔 字君悅 號青阜 一云黃軒 海南人 駱西德熙子 肅宗三十四年戊子生

英祖十一年乙卯進士 斗緒子德熙亦世其畫德熙之子愔亦有絕才(燃藜室別集)

라고 記錄되어 있는 바와 같이 尹愔은 李朝畫史中の 巨匠으로 널리 알려진 恭齋 尹斗緒의 孫이요 亦是 恭齋에 못지 않게 이름을 떨친 大畫家 蓮翁 尹德熙의 아들로서 「書畫徵」에 引用된

祭尹君悅文曰 嗚呼尹悅丹青餘事匪爾所重偶然揮洒亦自天縱烟雲草樹花鳥虫魚春夏秋冬濃淡慘舒回薄萬變窮神入虛庖刀合節郢斤生風高超色相不由人工司命降稟一性靈慧手自攸到儘何多藝(石北集)

라는 記錄으로 미루어 보면 尹愔은 그 父祖의 커다란 業績을 繼承한 天才畫家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亦是 「書畫徵」에 引用된

尹公嘗取蛺蝶蜻蜓之屬細視其鬚眉粉澤之微而描其形期於肖而後已即此而其精深刻苦可知也(與猶堂集)

라고 한 것을 보면 天才란 努力의 結果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이 君悅의 大成도 眞摯한 修業의 結晶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君悅의 作品으로 筆者는 細筆로 된 緻密한 山水圖를 몇 點 보았는데 매우 洗練된 筆致로 그려졌으며 若干의 花卉圖를 보았을 뿐으로 그 솜씨의 精妙함을 짐작할 수 있었던 바 十餘年前에 이 採艾圖를 보고 비로소 그 能熟하고 韻致 있는 筆致에 驚嘆하였다.

後日繼續해서 君悅의 좋은 遺作들이 많이 地上에 나와 紹介되기를 苦待하거나 이와 이 採艾圖 한 幅만으로도 君悅은 넉넉히 그의 父祖의 커다란 業績을 이어받을 實力이 充分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 百濟의 陶製硯과 石製硯

洪 思 俊

百濟時代 硯으로 八·一五前後 扶餘附近에서 發見된 것에 다음 數例가